

도,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구축 '머리맞대'

'농생명산업수도 육성' 6대 비전 목표 달성 도모... 산·학·연·관 모여 운영방안·추진상황 점검 협의회 개최

전북도는 대한민국 농생명수도로 우뚝 서기 위한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내딛으며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전라북도' 비전 선포 이후 2대 목표 및 6대 전략을 통해 식품, 종자,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등 농생명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및 기술혁신, 활성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25일 익산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서 산·학·연·관이 함께 모여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의 체계적 구축을 위한 운영방안

안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전북도와 익산시, 동물용의약품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관계자들이 모여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1단계 사업인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운영방안의 전문가 의견 제시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는 2020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익산시 월성동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부지 내에 올해까지 총사업비 250억을 투입해 준공될 예정이다.

또한 2023년 농식품부 국가 신규사업인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사업'도 공모 선정돼 300억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올해 사업비 10억 원의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 2025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는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및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동물용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 종합 분석시스템을 연계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산·학·연·관의 전문가들이 지속적인 의견 제시를

통해 전북의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집적화 및 고도화를 통한 동물용의약품 기업 유치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구축과 함께 동물용의약품 관련 인프라를 연계해 새로운 시너지 효과로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에 신약 개발 등을 지원해 동물용의약품 산업발전에 기여를 통해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이란 비전에 맞게 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향해 박차

전북 농어업·농어촌위원회 농촌활력분과 활동 시작 주요 업무계획·농촌활력분과 운영 전반 사항 등 논의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농정협치기구인 '전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의 농촌활력분과가 활동을 시작했다.

전북도는 25일 전주 원백명화마을(전북형 농촌관광 마을)에서 농어업인 농업단체, 학계, 유관단체 등 15명으로 구성된 농촌활력분과 1차 분과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도는 농생명산업수도 육성 6대 추진전략인 '누구나 살고 싶은 활력 넘치는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활력분과 주요 업무계획을 안내했다. 이어서 농촌활력분과 위원인 송미영 변호사가 최근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농생명산업 포럼 주제를 확정하고, 올해 농촌활력분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했다. 문은철 전북도 농촌활력과장은 "전북도 농촌이 누구나 살고 싶은 활력 넘치는 농촌으로 변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새롭게 개편된 농촌활력분과 위원회와 향후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농촌활력분과는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서 전북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민·관·학·연 협의체로 정책수혜자인 농업인 단체를 비롯해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며, 협의체는 누구나 살고 싶은 활력 넘치는 농촌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방향 수립 및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협업체제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성공 함께 이끌어요”

자원봉사자 200여명 참석·발대식 갖고 성공개회 다짐... 공항·전주월드컵경기장·14개 시군 경기장에 배치·운영지원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김관영)와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는 25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갖고 성공적인 대회개회를 다짐했다.

이날 발대식은 김관영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국주영은 도의장, 고영호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장 및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자원봉사자들은 오는 5월 10~22일 공항(인천·김포), 전주월드컵경기장(메인등록센터), 14개 시군 종목별 경기장(37개) 등에 배치돼 해외참가자 출입국지원, 대회 종합안내, 질서유지 등 운영지원 요원으로 활동한다.

또한, 해외참가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물론 몽골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번역 서비스도 지원한다.

발대식에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은 대회를 빛내는 제3의 선수라는 자세로 참가자와 관람객을 친절하게 맞이할 것을 결의했다.

자원봉사자 대표 선사에서 정지



25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에 김관영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도지사)을 비롯해 국주영은 도의장, 고영호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장 및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대회개회를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윤·이호진 봉사자는 "전세계 생활체육 선수단이 전북도를 찾는 만큼 민간 사업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전북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마스터스대회 김관영 조직위원장은 "자원봉사자는 전북을 찾는 선수와 관람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

할 수 있는 전북의 얼굴"이라며 "이번 대회는 전라북도의 저력과 잠재력을 세계인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올해 첫 전라북도 국제행사인 만큼 봉사자들이 성공 포문을 여는 디딤돌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고영호 이사

장은 "전북을 대표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함 안개로 최선을 다해줄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도내 지방센터에서는 각 경기장에 배치된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센터관리자를 배치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지방하천 정비 실시설계용역 주민설명회

28일까지 6개 시·군 8개 행정복지센터서 개최

전북도는 지방하천의 이·치수 기능 강화 및 재해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평사리천 등 8개 하천(28.3km, 1,324억 원)에 대해 25일부터 28일까지 6개 시·군(8개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실시설계용역의 현재 진행상황, 하천정비사업 설계(안) 및 세부 추진계획 등 사업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한편, 주민설명회에 참석이 어려워도 관련 내용은 도·시군 하천 담당 부서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유선을 통해 5월 9일까지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정읍 평사리천 등 8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주민설명회는 지역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주민 참여를 통해 지방하천정비에 대한 협조와 지지를 얻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훈 기자

전북새마을회, 제13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전라북도새마을회(회장 구자강)는 25일 알펜시아컨벤션에서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장, 서거석 도교육감, 도 및 시군 새마을회장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를 주제로 제13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전라북도새마을회는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 지속가능한 지구환경보전, 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한 전북형 해외협력사업, 차세대 지도자 육성을 위한 대학 새마을동아리·청년 새마을연대 구성 등 미래 100년을 준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 구자강 전라북도새마을회장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인 새마을운동은 나눔·배려·연대의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희망찬 세상 만들기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민으로서 보다 특별한 새마을운동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내년 초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살기 좋은,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새마을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국제행사 대비 도내 음식점소 중심... 청결·친절서비스 붐업 조성 홍보·캠페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 300여명 실천 다짐 결의대회

전북도는 국제행사에 대비해 도내 외식업소 등 음식점을 중심으로 청결한 위생과 친절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집중 실시해 손님맞이 준비를 위한 붐업 조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오는 5월에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등에 국내·외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식점의 안전한 먹거리와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해 붐업 홍보·캠페인 계획을 수립해 14개 시·군과 함께 본격 추진한다. 이와 관련, 25일 한국의 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지회장 김태경)

정기총회에서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등 참석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문 낭독과 손님맞이 붐업 피켓 퍼포먼스 등 실천 다짐 결의대회를 가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방문객에게 안전한 식사 제공과 친절 서비스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후 도내 14개 시·

군 지역 업주들과도 릴레이 홍보·캠페인을 계획중이며, 도와 시·군은 각 식당 입구에 부착할 손님맞이 포스터(1만부) 제작·배부 및 대회기간 동안 경기장 주변 음식점소 등에 음식 안전조리 요령 과 식중독 예방6대 수칙 리플릿(3,000부) 배부 등의 홍보 캠페인을 집중 추진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이후 도내 14개 시·

군 지역 업주들과도 릴레이 홍보·캠페인을 계획중이며, 도와 시·군은 각 식당 입구에 부착할 손님맞이 포스터(1만부) 제작·배부 및 대회기간 동안 경기장 주변 음식점소 등에 음식 안전조리 요령 과 식중독 예방6대 수칙 리플릿(3,000부) 배부 등의 홍보 캠페인을 집중 추진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 광고 제2023-897호

분묘개장공고(1차)

군산에서 시행하는 「기후대응 도시숲(새뜰마을)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분묘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후 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임의개장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및 기수

위치	지번	분묘기수
군산시 수송동	974, 708-2, 708-1, 702-5, 702-7, 701-4	10기
군산시 지곡동	286-7, 산9	5기

2. 개장사유 : 「기후대응 도시숲(새뜰마을)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분묘 개장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2023. 4. 24. ~ 2023. 7. 23.)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연고자 개장신고에 의한 개장 및 보상금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무연분묘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전치점소 및 기간
○ 장 소 : 군산시 소재 납골 및 봉안시설
○ 기 간 : 10년
6. 신고 및 문의처 : 군산시 산림복지과(☎063-451-2982)
7. 신고방법 : 연고자는 분묘위치(분묘번호)를 확인하고, 매장자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
8. 기 타 : 개장공고 후 사업위탁(장소) 내 추가로 발견된 분묘(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 시행 중 발견되는 분묘(농)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간주합니다.

2023년 4월 24일 군 산 시 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